



제주도립무용단의 창작춤 '이여도사나'의 공연 이미지.

삼승할망과 해녀 품고 이어도로

제주도립무용단 기획공연 인문·신화적 상상력 더해 김혜림 안무 '이여도사나' 잠비나이 라이브 연주 맡아

제주도립무용단이 연말 창작 무대로 불든 주제는 '이여도'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제주섬으로 향해 삶의 치유를 경험하려 하듯, 이 여도는 폭풍의 바다를 넘어야 하는 척박한 환경을 살아냈던 제주사람들의 고단한 나날을 위로해주던 이상향이었다.

이달 22-2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도립무용단 기획공연 '이여도사나' (대본 경민선)는 김혜림 상임안무자가 안무를 맡아 민요나 전설로 제주에 전해오는 이어도의 개념을 춤으로 풀어낸다. 제주 신화에 나오는 삼승할망을 모티브로 삼고 제주 해녀의 숭고한 생의 의지 등 인문·신화적 상상력을 더해 이어도를 그려낼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특히 도립무용단의 춤과 어울린 라이브 연주가 이루어진다. 국악 기반 크로스오버 밴드 '잠비나이'의 이일우가 음악감독을 담당해 제주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구성된 음악을 들려준다.

다. 잠비나이는 유럽과 북미대륙 등 30개국을 돌며 연주 활동을 벌여온 밴드다. 제주 출신 소리꾼 이원경씨도 공연에 참여해 제주민요를 새롭게 해석해 한층 생동감 있는 무대를 빛낸다. 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현행복 원장은 "삼승할망, 이어도, 제주해녀가 재해석돼 등장한다"며 "이 공연을 계기로 이들이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10인 이상 단체 4000원), 청소년 3000원. 문의 064)710-7641. 전신회기사 sunny@ihalla.com

대문없는 제주, 봄꽃 핀 축제장이어라

베트남 전 민 특 개인전 4·3과 베트남 역사 연결

베트남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트남 작가 전 민 특. 3개월 동안 문화공간 양(관장 김범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그가 제주 4·3, 6·25와 연결되는 베트남 역사를 풀어놓은 작품들로 전시를 열고 있다. '분홍꽃이 피다, 여기저기 어디서나 모든 지나간 그리고 다가올 봄에'란 이름의 개인전이다. '무제-분홍꽃이 피다, 여기저기 어디서나 모든 지나간 그리고 다가

올 봄에'는 베트남 전쟁 유물을 파는 시장에서 구입한 조명탄용 낙하산을 활용했다. 작가는 감춰진 비밀을 은유하는 분홍색으로 낙하산을 채색해 역사적 사물과 이야기에 덧칠을 한다. 행복을 염원하며 걸어두는 베트남 장식품인 새 두 마리가 마주보는 부조가 등장하는 사진인 '무제-삼무도(三無島)의 새들'은 대문이 없었던 제주도 전통을 누구나 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작품이다. 작가에게 대문없는 제주를 봄날 분홍꽃이 곳곳에 피어있는 축제의 장소다. 이달 17일까지 제주시 거로남6길



전 민 특의 '무제-삼무도의 새들'.

13 문화공간 양. 목-일요일 낮 12-오후 6시에 상시 관람 가능하다. 예약 관람 문의 064)755-2018, curator.yang@gmail.com 전신회기사

문화가 쫓겨

제주DPI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이 주최하는 제20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11월 7-10일 김만덕기념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갑수성은 더하고 편견은 빠져'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영화제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문제를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외에서 50편의 경쟁작이 접수됐고 15편이 본선에 올랐다. 장애인의 결혼 문제를 다룬 제주 출신 김경률 감독의 '작은 불씨 하나'도 특별상영한다. 첫날 오후 2시부터 상영되는 개막작은 채승훈 감독의 '우리'다. 064)757-9897.

제주 설화 제주어 구연대회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 대상 제주 설화 제주어 구연대회를 이달 24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연다. 이번 대회는 제주어 저변 확대와 제주 설화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 접수는 6-8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제주 설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어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064)710-7693.

손뼉글씨 핸드피스 새김전

손뼉글씨 핸드피스 새김전시회가 이달 7일까지 연례갤러리에서 열린다. 치기공이나 금속공예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피스의 다양한 날을 활용해 새김 작업을 벌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강도연 등 30여명이 참여해 '제주'를 주제로 제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노래, 민요 등을 새긴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을 만들고 구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고 편집해 큐알코드도 제작했다. 도록과 작품에 배치해 관람객들이 휴대 전화를 이용해 작품 제작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757-4477.

제주캘리사랑모임 회원전

40~50대 여성으로 구성된 제주캘리사랑모임이 '제주 필(Feel)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이달 12일까지 한라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손글씨의 매력에 빠진 회원들이 틈틈이 작업한 작품들이 나왔다. '사랑하는 자', '산과 바다', '동백꽃처럼', '행복' 등 긍정의 메시지를 관람객들과 나눈다. 출품 회원은 강미선 김미연 김정숙 박세영 이명숙 임경미 이윤경 씨 등 7명이다. 오장순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가 지도를 맡고 있다. 010-2661-2650.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17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기자 응용>



○맹이가 골멘, "누님! 흑룡이 맹인 '펜안'이영 혼넨넨 불르난 어떻게우? 누님이 나신디 선제혼 놀레는 잘 낱릿당 불르쿠다예- 잘도 놀레가 좋은 삼춘넨넨 신디 막 자랑헿정 헿넨마썸. 헿넨디 누님은 쯤넨넨 헿레 어느 즈르에 가젠 헿염수광? 하르바님 즈들지 아니헿게 갈 채비나 혼저 흡서예." 쯤넨네가 곤기를, "어- 경 헿여사 쯤켜이. 날광 나 몸이 시초헿헿 헿다마는 이제 물 썸 때 쯤는 썸여어. 쯤기 멩겨오마. ○맹이야-나 '흑룡과 봉황 이야기' 듣고정헿게. 하르바님 혼디 잘 썸아도라이- 물질헿레 멩겨 온 후제 이와 헿여썸썸이"

* 제주어 풀이

- *골멘 : 말하네. *놀레 부르난 어떻게우? : 노래를 부르니 어때요? *잘도 놀레가 좋은 : 노래가 참으로 좋으니. *자랑헿정 헿넨마썸 : 자랑하려고 해요. *즈르(저르, 즈를, 저를) : <이름>겨를. 짬. 뽀. (즈르지다: 바쁘다) *어느 즈르에 가젠 헿염수광? : 어느 틈에 가려해요? *즈들다(저들다) : <움직> 걱정하다. 근심하다. 성가셔하다. *곤기를 : 말하기름. *쯤기 멩겨오마 : 얼른 다녀오마 *듣고정헿게 : 듣고싶은데. *혼디 잘 썸아도라이 : 한테 잘 말해달라. *물질헿레 멩겨 온 후제 : 물질하러 다녀 온후에.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여제>여제씨(부사) <대어>대어씨(대명사)/<썸>썸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오>오씨(조사)/<때>때씨(조사)/<이름>이름씨(인명) <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배우와 관객 더 가까이 소극장연극축제

제주연극협회 이달 10일부터 문예회관·미예랑 소극장 5편

제주연극협회(회장 이상용)가 연말 관객들과 만나는 소극장연극축제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이 28회째로 광주 극단을 포함 5편이 무대에 올려진다. 극단 정남극장이 이광후·조희란·정미선이 출연하는 '삼월의 눈' (배삼식 작, 강한근 연출)으로 소극장 축제의 문을 연다. 10일 오후 3시와 7시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 극단 자유의 '세

남자' (원제 '아트', 황재현 번안, 송정우 연출) (12일 오후 7시), 제주 극단 파노가리의 '동일' (문무한 작, 연출) (13-14일 오후 7시)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제주 극단 이어도와 퍼포먼스단 몸짓은 미예랑 소극장을 이용한다. 11월 30일 오후 7시, 12월 1일 오후 3시에는 이어도의 '몽골 익스프레스' (송정혜 작, 연출)를 펼쳐놓는다. 12월 7일 오후 3시와 7시에는 몸짓의 '그게 뭐라고' (강종임 작, 연출)를 공연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55-0904. 전신회기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제17회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2019.11.10(일) 오전 9:00
조천운동장~월정리해안도로 방향 왕복

클럽동호회 20인 이상 개별부스 제공
클럽동호회 훈련비 지원 (풀, 하프, 10km 참가자 기준)

주최 | 한리일보사, (사)제주감귤연합회(농협)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사무국 T.064-750-2291

http://marathon.ihalla.com 제주감귤국제마라톤